

#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7년 12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경,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89번(주 하느님 자비로이)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주고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경 읽기: 루카 3,7-18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경을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①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친다.
  - ② 구역별 성탄 환공성사를 잘 준비한다.
  - ③ 200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관심했던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을 한다.
  - ④ 다음 모임을 결정한다.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91번(구세주 빨리 오사)

MEMO

## <교리 1>

### ※ 신앙 고백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경으로 고백하고 전례 안에서 기념하며, 계명과 기도의 실천으로 생활화하는 신앙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신앙이란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내어 주시며 동시에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인간에게 풍요한 빛을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은 인간의 추구를, 이어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계시를, 끝으로 신앙의 응답을 고찰하고자 한다.

### ※ 하느님을 향한 갈망

\*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인간의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간은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늘 인간을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며,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의 빼어난 이유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 받은 인간의 소명에 있다.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과 대화하도록 초대받는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되고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존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랑을 자유로이 인정하고 자기 창조주께 자신을 맡겨 드리지 않고서는 인간은 온전히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다.

\*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종교적 행위들(기도, 제사, 예배, 묵상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는 길을 표현해 왔다. 이러한 표현 양식들은, 비록 모호한 점들을 내포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매우 보편적인 것들이므로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라고 일컬을 수 있다. 하느님께서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사도 17,26-28)

\*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과 이토록 친밀한 생명의 결합”을 종종 망각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명백하게 거부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태도들은 매우 다양한 근원에서 비롯될 수 있다. 곧 세상의 불행에 대한 반발, 종교적인 무지나 무관심, 현세와 재물에 대한 근심, 신앙인들의 좋지 못한 표양, 종교에 대한 적대적 사조, 그리고 끝으로, 하느님이 두려워 몸을 숨기며, 그분의 부름을 듣고 달아나는, 죄인인 인간의 태도 등이다.

\* “주님을 찾는 마음은 즐거워하여라.” (시편 104[105],3). 비록 인간은 하느님을 잊거나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을 찾아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모든 이를 끊임없이 부르신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느님을 찾으려면 자신의 모든 지성적 노력, 올바른 지향, ‘바른 마음’, 그리고 하느님을 찾도록 가르치는 다른 이들의 증언이 필요하다.

“주님, 주님께서 위대하시고 크게 기림직하옵시며, 그 힘은 능하시고 그 지혜로우심은 헤아릴 길 없나이다.” 당신께서 내신 한 줌 창조물인 인간이, 죽을 운명을 지녔으며, 자신의 죄와 “당신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는 증거를 스스로 지닌 바로 그 인간이 당신을 기리려 하나이다. 당신의 한 줌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당신을 찬미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찬미하여 기쁨을 누리도록 인간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주님을 위하여 저희를 내셨기에,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찻찻하지 않삼나이다.

## <성경묵상>

###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카 3,7-18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요한은 이렇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들은 군중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은 생활 태도의 진정한 변화 없이 세례의 예식을 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또한 하느님 백성의 일원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독선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연은 하느님 심판의 불 앞에서는 그 어떤 이점도 제공해 주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이 요구하는바 의롭고 관대하며 진실로 도덕적인 생활만이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에 나오는 도덕적 가르침을 대표하는 자로서 말합니다.

**현세 재화의 사용은 율법과 예언서가 설파한 정의와 나눔의 의무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원은 정의와 관대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장차 예수님께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요한의 설교는 하느님 백성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여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 외에도 그들을 메시아에게로 이끌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회개는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골프선수와 유명한 축구선수의 성공적인 공통적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중요한 경기에서 상대편 선수나 팀을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란 점입니다.

골프선수는 경기에서 진정으로 승부를 할 때 초조함과 꼭 이겨야만 한다는 욕심, 그러한 것으로부터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욕심을 부추기는 저 자신과 싸우며 공 하나하나를 쳐왔다고 합니다. 또한 축구선수는 무명시절에 항상 남보다 앞서고 더 튀어 보이려 했고, 저보다 잘하는 선수들을 속으로 질투하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러한 것이 그릇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상대팀 선수를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저 자신과 싸우며 동료들을 위한 경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들과의 경쟁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회개란 근본적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며,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오는 변화입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굶주리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며,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자기 봉급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웃과 직접 관계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 혼자만 이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나눔>

1.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2.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괴롭혔던 것은 무엇입니까?

## 내 마음속에 있는 해답

지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과 진실을 담고  
미워하고 있는 이를 찾아가 손을 내밀면  
그와 함께 화평의 웃음을 나눌 수 있게 될테니까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의 실패로 좌절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새로운 희망의 열정을 풀어놓으면  
곧 생기가 돌면서 더 좋은 일을 하게 될테니까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와 이별로 괴로워 하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순수한 사랑의 설렘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별이 아니라 계속되는 만남이니까요.

지금 내가 가난으로 삶에 지쳐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정성과 인내를 채우면  
쉽게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금방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테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이 쌓여 얼굴이 어둡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라는 단어를 살며시 넣어보면  
금세 내 얼굴은 밝아질테니까요.

지금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정직하고 소박한 목표가 정해지면  
나는 금방 잘못된 옛길을 벗어나서 좁지만  
아름다운 새 길을 걷게 될테니까요.